



필리핀한인상공회의소뉴스

KOREAN CHAMBER OF COMMERCE PHILIPPINES NEWSLETTER



August 2024 Issue | Vol. 61

SPECIAL POINTS OF INTEREST

-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1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 page 1
- 필리핀, 'A' 신용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6-7% 성장 필요 — 렉토 — page 2
- 기업 그룹,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지지 — page 2-3
- 관계자들, 인플레이션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설명 — page 3-4
- RBI, 필리핀 신용 등급을 'A-'로 상향 조정 — page 4-5
- 2025년 PIT 투자 계획 — page 6-7
- 렉토, 재무부, BRICS 블록 가입 고려 — page 7

금리 인상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외국인 직접투자 16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

August 14, 2024 | Ian Nicolas P. Cigaral - @inquirerdotnet | Philippine Daily Inquirer

필리핀의 외국인 직접투자(FDI)는 5월에 1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이미 지정학적 긴장에 대해 걱정하는 투자자들에게 골칫거리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INQUIRER.NET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월 FDI 순유입액은 4억 99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 감소했습니다.

시장에 첫 번째 징후가 보이자마자 떠나는 이른바 '핫머니'와 달리, FDI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더 견고한 자본 유입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기존 FDI가 머물기를 원하며, 새로운 FDI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순유입은 이 기간 동안 유출된 자본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 자본이 국내에 들어왔음을 의미합니다. 5월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지만, 이 달 동안 FDI 순유입액은 2023년 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잠재적인 둔화

감소에도 불구하고, 5개월간의 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입은 전년 대비 15.8% 증가하여 4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BSP는 2024년 전체에 대해 95억 달러의 FDI 순 유입을 예상했습니다.

로버트 단 로세스(Security Bank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5월 데이터는 잠재적인 둔화를 시사합니다.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국내 도전 과제, 지역 경쟁 등 여러 요인이 이에 기여했을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로세스는 이어서 "높은 금리에 대한 FDI의 민감성이 추가적인 복잡성을 더합니다."라고 덧붙이며, BSP가 예상한 2024년 95억 달러의 FDI 목표를 달성하려면 "지속적인 투자자 신뢰와 유리한 경제 환경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필리핀 개발 연구소(Philippine Institute for Development Studies)의 선임 연구원인 존 파올로 리베라(John Paolo Rivera)는 서필리핀해의 긴장이 투자자들을 위협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강력한 기초

"그러나 경제 성장 잠재력과 관리된 거시경제 기초에 의해 완화되었을 수 있습니다."라고 리베라가 덧붙였습니다.

BSP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새로운 FDI를 측정하는 주식 자본 배치가 5월에 32.1% 감소하여 1억 7천4백만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이번 달의 대부분의 신규 외국 자본은 일본에서 유입되었으며, 제조업 부문이 새로운 FDI의 55%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5월에는 1천4백만 달러 규모의 FDI가 빠져나갔으며, 이는 작년보다 36.9%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로 인해 순 주식 자본은 1억 6천1백만 달러로 31.7% 감소했습니다.

이익 재투자 역시 3.7% 감소하여 9천7백만 달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과 필리핀 자회사 간의 상호 대출은 43.4% 증가하여 2억 4천2백만 달러에 달하는 밝은 점이 있었습니다.

Source: <https://business.inquirer.net/474673/fdis-fall-to-16-month-low-as-high-rates-geopolitical-tensions-bite>

필리핀, 'A' 신용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6-7% 성장 필요 — 렉토

August 14, 2024 | Beatriz Marie D. Cruz | BusinessWorld



PHILIPPINE STARMIGUEL DE GUZMAN

필리핀 경제는 향후 4년 동안 평균 6-7% 성장하고 재정 목표를 달성해야 "A" 신용 등급을 받을 수 있다고 재무장관 랄프 G. 렉토(Ralph G. Recto)가 말했습니다.

렉토 장관은 "향후 4년 동안 매년 6-7% 성장하고, 같은 기간 동안 적자가 일관되게 감소하며, 부채 대비 GDP(국내 총생산) 비율이 계속 낮아진다면, 우리는 신용 등급을 상향 조정받을 것입니다."라고 개발 예산 조정 위원회와 함께한 상원 청문회에서 언급했습니다.

경제 관리들은 올해 6-7%의 GDP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5년에는 6.5-7.5%, 2026년부터 2028년까지는 6.5-8% 성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2028년 마르코스 행정부가 끝나기 전에 "A" 수준의 신용 등급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6월에 Fitch Ratings는 필리핀의 "BBB" 투자 등급을 유지하며, 전망은 "안정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BBB" 등급은 낮은 부도 위험을 나타내며, 경제가 적절히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반영합니다.

필리핀은 Moody's Ratings에서 "Baa2" 등급을, S&P Global Ratings에서 "BBB+" 등급을 보유하고 있으며, 두 기관 모두 "안정적"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는 더 높은 등급, 즉 'AA' 또는 '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필리핀 중앙은행(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 주니어(Eli M. Remolona, Jr.)가 상원 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더 높은 신용 등급을 통해 필리핀은 차입 비용을 낮추고 외국 투자를 더 많이 유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레몰로나 총재는 "A" 신용 등급을 달성하기 위해 정부가 거시경제 안정성, 재정 지속 가능성 및 좋은 거버넌스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신용 등급 기관과의 협의에서는 거버넌스 측면이 해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습니다."라고 BSP 경제 연구 부서의 조너 론알드 R. 아베노자(Zeno Ronald R. Abenoja) 전무가 말했습니다.

아베노자 전무는 정부가 예산 과정과 집행에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해 진전을 이뤘다고 언급했습니다.

렉토 장관은 정부의 수정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른 목표 달성 또한 필리핀의 더 나은 신용 등급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상원에서는 단일 사용 플라스틱에 대한 소비세, 광업 재정 제도 합리화, 포괄적 세금 개혁 프로그램 패키지 4, 그리고 기업 회복 및 세금 인센티브(CREATE) 법안 수정안 등 미뤄진 수익 법안의 통과가 거시경제 안정성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렉토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8/14/613852/philippines-needs-6-7-growth-to-achieve-a-credit-rating-recto/>

기업 그룹,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지지

August 14, 2024 | Janine Alexis Miguel | The Manila Times

여러 기업 그룹이 에너지 안전성과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기후 변화 우려와 에너지의 경제성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면, 에너지부(DoE)의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을 지지했습니다.

The Manila Times®

화요일 공동 성명에서 필리핀 경영자 협회가 주도하는 기업 그룹들은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고려할 때, DoE의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 추구 접근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는 아래 서명한 기업 그룹으로서, 라파엘 P.M. 로틸라(Raphael P.M. Lotilla) 장관의 지도 하에 에너지부가 국가의 특정 상황에 적합한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며 균형 잡힌 에너지 믹스의 중요성을 인식한 점을 칭찬합니다."라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Cont. page 3]*

기업 그룹, 균형 잡힌 에너지 정책 지지

[Cont. from page 2]

“신흥 시장으로서, 이 나라는 에너지 안전성과 경제성을 기후 변화 우려와 균형 있게 맞추어 경제 성장을 지원해야 합니다.”

필리핀은 동남아시아에서 1인당 에너지 공급량이 세 번째로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전력 용량을 강화할 필요성이 시급함을 강조합니다.

정부는 2040년까지 50%의 재생 에너지 비율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룹은 여전히 상당 부분의 에너지 생성이 화석 연료 기반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에너지 불안정성은 비용이 많이 듭니다. 올해 1월 파나이 섬에서 발생한 정전은 일로일로 지방에서만 약 38억 페소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성명서는 또한 새로운 녹색 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하는 석탄 화력 발전소에 대한 DoE의 권고를 인용했습니다.

기억하자면, 산라카스(Sanlakas)와 전력 위한 국민 연대(Power for People Coalition) 등 원인 지향적 그룹들은 석탄 금지 정책을 위반한 혐의로 로틸라 장관을 고소했습니다.

그러나 DoE는 2020년 12월에 발표된 정책이 전면 금지 조치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기존 및 운영 중인 석탄 화력 발전 시설과 약속된 전력 프로젝트로 간주되는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부서에 따르면, 이미 확정된 확장 계획과 서명 및 공증된 토지 취득 또는 임대 계약이 있는 기존 전력 발전소 단지들도 면제됩니다.

필리핀 상공 회의소는 원인 지향적 그룹들의 석탄 전력 프로젝트 금지 위반 주장에 대해 근거가 없다고 이전에 언급한 바 있습니다.

[Source: https://www.manilatimes.net/2024/08/14/business/top-business/business-groups-back-balanced-energy-policy/1964068](https://www.manilatimes.net/2024/08/14/business/top-business/business-groups-back-balanced-energy-policy/1964068)

관계자들, 인플레이션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설명

August 13, 2024 | Jean Mangaluz | Philstar.com



마닐라, 필리핀 —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 아킬리노 피멘텔 3세(Aquilino Pimentel III)는 화요일에 인플레이션이 국가 정부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의회가 정부의 목표 인플레이션율을 달성하기를 기대하며 2023년 예산을 승인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 인플레이션은 2%에서 4% 사이의 목표 범위를 초과했습니다. 실제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약 6%로 마감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예산에 집착해서 사용하는 것이냐? 그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보입니다.”라고 피멘텔은 브리핑 중에 말했습니다.

예산 장관 아메나 팡안다만(Amenah Pangandaman)에 따르면, 높은 인플레이션율은 예상치 못한 긍정적인 측면으로 정부 수입이 증가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거시경제 파라미터에 대한 예산 민감도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의 데이터에 따르면, 인플레이션율이 1% 증가할 경우 수입이 339억 페소 증가할 것이며, 정부 지출은 가용 세출 한도로 제한되기 때문에 적자 영향을 예상하지 않습니다.”라고 팡안다만 장관이 말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의 논문도 이를 뒷받침하며, 인플레이션이 수익이 신속하게 조정되는 동안 재정 균형을 일시적으로 개선할 수 있지만, 주요 지출은 따라잡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경제개발청(NEDA) 장관 아르세니오 발리사칸(Arsenio Balisacan)은 인플레이션이 경제 성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지적했습니다.

[Cont. page 4]

관계자들, 인플레이션이 국가 예산에 미치는 영향 설명

[Cont. from page 3]

그는 인플레이션이 상품과 서비스의 비용을 증가시켜 소비자 지출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예상보다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성장 성과가 낮아졌습니다. 특히 가게 소비가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고, 높은 인플레이션이 높은 이자율과 연결되어 있어 투자 측면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이 설명했습니다.

2023년 Pulse Asia 조사 결과도 이러한 발견을 뒷받침하며, 95%의 필리피노가 음식에 더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지만, 절반 이상이 실제로는 식사량이 줄어들고 있다고 보여줍니다.

결과적으로 예산의 큰 부분이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지원에 할당되고 있습니다.

브리핑 중에 팡안다만 장관은 국가 지출 계획(NEP)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다루기 위한 사회적 지원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 복지 개발부와 같은 기관을 통해 추가 지원이 할당됩니다.

정부의 주요 빈곤 완화 프로그램인 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4Ps)의 제안된 예산은 79억 페소 증가하여 2024년 예산의 1063억 페소에서 2025년 NEP의 1142억 페소로 늘어났습니다.

행정명령 64는 민간 정부 직원들의 임금 인상을 도입했으며, 2025년 NEP에 이 목적을 위해 700억 페소가 배정되었습니다.

발리사칸 장관은 또한 인플레이션의 효과가 자연 효과를 가지며, 즉시 전체 영향을 느끼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성장 예상과 목표에 기반하여 정부의 지출을 예산하고 있습니다. 만약 올해의 성장률이 이전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로 인해 낮아진다면,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것이며, 이는 적자와 부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라고 발리사칸 장관이 말했습니다.

Source: <https://www.philstar.com/business/2024/08/13/2377609/officials-explain-how-inflation-impacts-national-budget>

R&I, 필리핀 신용 등급을 'A-'로 상향 조정

August 15, 2024 | Luisa Maria Jacinta C. Jocson | BusinessWorld

일본에 본사를 두고 있는 Rating and Investment Information, Inc. (R&I)는 필리핀의 투자 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필리핀의 강력한 경제 성과를 반영한 것입니다.

“거시경제 안정성과 높은 경제 성장 경로, 그리고 재정 균형의 지속적인 개선 기대를 바탕으로, R&I는 외화 발행자 등급을 ‘A-’로 상향 조정했습니다.”라고 R&I는 웹사이트에 게시된 문서에서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8월에 부여된 “BBB+” 등급보다 한 단계 상승한 것입니다.

신용 평가 기관은 또한 필리핀의 전망을 이전의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조정했습니다. R&I에 따르면,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망은 향후 등급 변화를 나타내는 진술이 아니며, 긍정적 또는 부정적 전망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정적 전망을 부여합니다.

“필리핀 경제는 공공 및 민간 부문의 활발한 투자, 비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BPO)과 같은 국내 비즈니스 부문의 발전, 유리한 인구 통계 등 여러 요소를 배경으로 안정적인 성장과 국가 소득 수준의 지속적인 개선을 경험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R&I는 말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올해 2분기에 6.3% 성장하며, 2023년 1분기의 6.4% 이후 5분기 만에 가장 빠른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필리핀 경제는 동남아시아 주요 경제국 중에서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6.3%의 2분기 국내 총생산(GDP) 성장률은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로, 베트남(6.9%)에 이어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으며, 말레이시아(5.8%)와 인도네시아(5%)를 앞섰습니다. [Cont. page 5]



The Philippine flag is being raised at the Rizal Monument in Manila, June 11, 2024. — PHILIPPINE STAR/EDD GUMBAN

R&I, 필리핀 신용 등급을 'A-'로 상향 조정*[Cont. from page 4]*

정부는 올해 6-7% 성장과 2025년에는 6.5-7.5%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R&I는 또한 부채가 “이자 지급 부담이 관리 가능하므로 감당할 만하다”고 언급하며 국가의 재정 관리 개선을 주목했습니다.

“COVID-19(2019 코로나바이러스 질병) 팬데믹 동안 악화되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균형이 개선되었으며, 정부 부채 비율은 1~2년 내에 감소하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2분기 현재 정부의 적자 대비 GDP 비율은 5.3%로, 올해 설정된 5.6% 적자 상한선 아래에 있습니다.

한편, 부채 대비 GDP 비율은 지난해 61%에서 2분기에는 60.9%로 완화되었습니다. 2024년 말에는 60.6%로 추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I는 필리핀의 경상수지 적자도 평가에서 “반드시 부정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고는 수입과 비교할 때 충분한 수준에 있습니다. 국제 투자 위치의 재정 자산을 초과하는 부채에도 불구하고, 부채와 자산 간의 격차는 GDP 대비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R&I는 외부 위험이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앙은행은 2024년 경상수지 적자가 4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GDP의 1%에 해당합니다. 1분기 경상수지 적자는 17억 달러로, GDP의 1.6%에 해당합니다.

한편, 재무 장관 랄프 G. 레크토(Ralph G. Recto)는 성명에서 이번이 마르코스 행정부의 첫 번째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우리의 정제된 중기 재정 계획은 'A 등급으로 가는 길'을 위한 청사진입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점진적으로 적자와 부채를 줄이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민들의 소득을 증가시키며, 경제를 더욱 성장시키고, 빈곤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 계획을 고수함으로써 우리는 더 빠르게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무부는 R&I의 신용 등급 개선이 외국인 투자자를 유치하고 더 저렴한 차입 조건을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정부가 이자 지급에 배정되었을 자금을 더 많은 개발 프로그램으로 전환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인프라 프로젝트, 향상된 사회 서비스, 더 나은 건강 관리 시스템 및 질 높은 교육에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중앙은행(BSP)은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 신용 위험을 낮추어 “개발 파트너 및 국제 채무 자본 시장에서 더 낮은 비용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습니다.

“BSP는 가격 안정성, 금융 안정성,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및 정산 시스템을 촉진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라고 BSP 총재 엘리 M. 레몰로나(Eli M. Remolona) Jr.가 말했습니다.

리잘 상업 은행(Rizal Commercial Banking Cor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마이클 L. 리카포트(Michael L. Ricafort)는 최신 신용 등급 상향 조정이 필리핀을 최소 투자 등급보다 세 단계 높은 위치에 올려놓았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일본 신용 평가 기관 JCR이 부여한 'A-' 신용 등급과 유사하며, 일정 부분 일치합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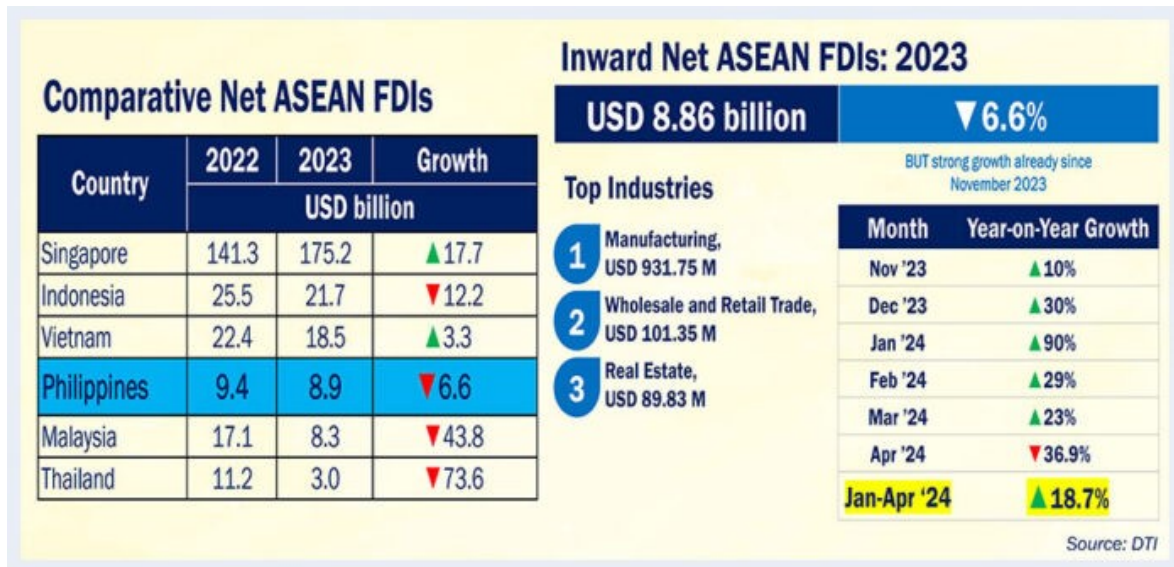
필리핀은 현재 일본 신용 평가 기관(JCR)에서 “A-” 등급, Fitch Ratings에서 “BBB”, Moody's Ratings에서 “Baa2”, S&P Global Ratings에서 “BBB+” 등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행정부 임기 종료 전에 “A” 등급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www.bworldonline.com/top-stories/2024/08/15/614100/ri-upgrades-phl-credit-rating-to-a/>

2025년 PIT 투자 계획

August 15, 2024 | Irma Isip | Malaya Business Insight



정부는 무역산업부(DTI)를 위한 국가 지출 프로그램(NEP)을 기반으로 2025년 투자 목표를 1조 페소로 낮추었습니다.

이 수치는 올해 예상된 1.15조 페소와 2023년 실제 투자액 1.26조 페소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한편, 2025년 수출 목표는 2024년 목표인 1,027억 달러에서 1,130억 달러에서 1,636억 달러 범위로 증가하는 것입니다.

2023년 실제 수출액은 1,030억 달러였습니다.

어제 하원 예산 위원회 발표에서는 DTI 예산이 2025년에는 106억 페소로, 2024년의 103억 2천만 페소보다 약간 높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 중 83억 페소는 장관실(OSEC)과 그 산하 기관을 위한 것이며, 나머지는 산하 공기업들을 위한 것입니다.

2024년 OSEC과 그 산하 기관을 위한 GAA는 약간 높은 86억 4천만 페소입니다.

청문회에서 DTI 차관 세페리노 로돌포(Ceferino Rodolfo)는 인센티브, 전력 문제 및 사업 운영의 용이성이 성장과 경쟁력의 제약 요인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사업 운영의 용이성을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전략적 투자에 대해 우선 Green Lane을 제공하는 것입니다.”라고 로돌포는 말하며, 모든 프로젝트에 대해 이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Green Lane에 등록된 프로젝트는 요구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의 전환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며, 특히 국가가 용량을 증가시키고 전력 비용을 낮추기를 원할 경우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이 언급한 또 다른 제약 요소입니다.

로돌포는 인재 개발이 제약 요소이자 기회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민간 부문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향상 및 재교육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제약 요소는 인센티브입니다.

로돌포는 인센티브를 관리하는 투자 위원회(Board of Investments) 의장으로서, 3월에 토지 무상 임대 및 전략적 프로젝트의 청소 비용 환급을 제공하는 지침을 발표한 베트남의 매력도를 언급했습니다. [Cont. page 7]

2025년 P1T 투자 계획

[Cont. from page 6]

로돌포는 수출 성장의 기회로 다음과 같은 분야를 지목했습니다: 광물 가공, 반도체 및 전자 제품, 정보 기술-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IT-BPM), 건강 및 지속 가능한 식품.

로돌포는 광물 가공이 현재 1%에서 2%에서 3%로 국가의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킬 잠재력이 있으며, 정부가 구리, 니켈, 철, 크로뮴, 코발트 및 기타 많은 광물에 대한 녹색 금속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도체 및 전자 제품은 필리핀 수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로돌포는 필리핀이 공급망을 확보하려는 투자자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IT-BPM 부문이 여전히 좋은 분야로 평가되며, 수출 측면에서 400억 달러의 수익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Source: 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lt-investments-eyed-in-2025/](https://malaya.com.ph/news_business/plt-investments-eyed-in-2025/)

렉토: 재무부, BRICS 블록 가입 고려

August 14, 2024 | Chino S. Leyco | Manila Bulletin



재무부(DOF)는 필리핀이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신흥 경제국 연합인 BRICS 블록에 가입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BRICS는 미국과 서방의 영향력에 맞서기 위해 결성된 블록입니다.

8월 14일 수요일, 상원 재무위원회가 2025년 국가 예산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재무장관 랄프 G. 렉토는 DOF가 이 옵션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렉토 장관은 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와 관련하여 마르코스 대통령의 내각이나 경제 클러스터 내에서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내각이나 경제 관리자들과의 공식적인 논의는 없었지만, DOF에서는 이 문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라고 렉토 장관은 상원의원 이미 R. 마르코스가 BRICS에 대한 그의 입장을 묻자 답했습니다.

1월에는 BRICS 블록이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이란, 에티오피아를 새 회원국으로 추가했습니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베네수엘라, 카자흐스탄을 포함한 30개국 이상이 가입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최근에는 두 개의 ASEAN 경제국이 블록 가입에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태국은 지난 6월 가입 요청서를 제출했으며, 말레이시아는 곧 공식 절차를 시작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확대된 BRICS 그룹은 현재 약 35억 명의 인구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인구의 45%를 차지합니다. 이들 경제를 합친 가치는 28.5조 달러를 넘어서며, 세계 경제의 약 28%를 차지합니다.

BRICS 국가들은 또한 미국 달러의 국제 금융 시스템 내 지배력에 도전하기 위해 자국 통화의 바스켓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준비 통화의 설립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BRICS 국가들이 새로운 준비 통화를 성공적으로 창출할 경우, 이는 미국 달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수요 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탈달러화(de-dollarization)’라는 현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미국 달러는 모든 국제 통화 거래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의 100%의 석유 거래가 미국 달러로 진행되던 상황에서, 2023년에는 이 비율이 감소하였고, 보고서에 따르면 석유 거래의 5분의 1이 이제 비미국 달러 통화로 결제되고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Source: https://mb.com.ph/2024/8/14/recto-dof-considers-joining-brics-bloc](https://mb.com.ph/2024/8/14/recto-dof-considers-joining-brics-bloc)

This KCCP E-Newsletter is supported by:



Lotte Corporation is the largest shareholder of Pepsi Cola Products Philippines Inc.